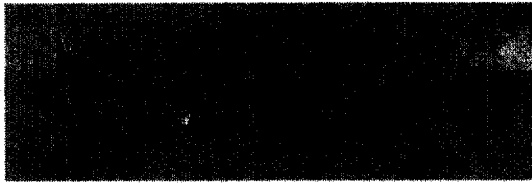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증언소설의 발생요인과 로돌포 알쉬

박종율(조선대학교)



I. 들어가면서 : 역사와 픽션

역사와 픽션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óteles) 이후 꾸준히 구분되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구분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란 주어질 수 없다는 평가에 직면하게 된다. 유럽 대륙의 사상가들-발레리(P.A. Valéry)와 하이데거(M. Heidegger)에서 사르트르(J.P. Sartre),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 푸코(M. Foucault)에 이르기까지-은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독특한 '역사적 의식'의 가치에 대해서 강한 회의론을 나타내고, 역사 재구성의 허구적인 성격을 강조했다.¹⁾ 같은 무렵에 영미(英美) 철학자들은 인식론의 위치와 역사적 사고의 문학적 기능이나 문학에 관해서 비중 있는 문헌들을 발표했는데, 그 문헌들

1) '역사'는 독특한 존재 형식이나 사상 형태로서의 '역사 의식', 그리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범주 내에 있는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역사 의식'으로 간주되었다.(White, 1991 : 11) 역사의식에 항거하는 이러한 반항의 근거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White, Hayden, "The Burden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5(2), 1966 : 111-134 참조할 것.

은 대체로 엄격한 과학과 순수 예술로서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정당화한 것이었다.²⁾ 이 두 연구 동향의 결과는 19세기초부터 유럽인들을 자만에 빠뜨린 역사 의식이 사실은 이데올로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기존의 역사 의식에 항거하는 문헌들을 기초로 탈구조주의 계열인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는 텍스트로 존재하는 역사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 곧 역사서술이 갖는 문학성을 강조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모든 역사서술은 비유의 수사학, 구성의 상상력, 플롯을 동원한 이야기로 순수역사가 아니라 메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역사서술과 창작, 사실과 허구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으며, 역사가 상상력을 활용하는 분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 이후 구미의 역사학계는 일상사, 심성사, 문화사, 언어로의 전환 등 새로운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사 연구 곧 거대구조와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역사서술, 역사를 통일되고 일관된 체계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 사회경제적 결정론의 관점에 입각한 분석과 설명방식 등을 비판하고 거부한다. 이러한 경향은 곧 미시 역사에 대한 접근이며, 증언사를 역사 연구의 한 방법으로 본다(정찬영, 1999 : 344-345).

포스트모던 역사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케이스 젠킨스(Keith Jenkins)는 역사란 역사가들이 책이나 논문, 기록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원상태와는 별로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다시 옮겨 놓은 언어적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언어적 구성은 역사가의 인식론, 방법론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란 유동적이며 문제 투성이인 담론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역사에 반대하고 보다 역사적 사실의 진실에 밀착하는 데 필요한 힘과 대안적 읽기는 대중의 기억이나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³⁾(Jenkins, 32-33, 75)

2) 이 논쟁의 내용은 Hayden White, 1991 : 11-15를 참조할 것.

3) 글로 쓰여진 기록문인 서적, 일기, 중서 이외에도 민담, 전설 등도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노래나 연설, 인터뷰 그리고 공식 비공식의 대화 등 말에 의한 자료도 증언에 유용한 것들이다.

증언사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의 수집이라기보다 어떤 한 개인이 그의 인생에 대한 기억들, 그가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목격했거나 참가했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의 수집이다(Hoopes, 14). 어느 사회에서나 불법적이거나 일탈적인 행위는 좀처럼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증언이야말로 그런 내용에 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적 사실이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난 후에야 역사의 가치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체험적 당대이거나 역사적 사실이 현재진행일 경우에는 역사적 가치 평가에 기댈 수 없게 된다.⁴⁾ 또한 기록화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은 한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영원히 묻혀버리고 말거나 왜곡된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다큐멘타리적 접근법이 등장한다. 여기서 예술의 기록성과 기록의 예술성을 통일 지향하여 하나의 새로운 예술의 방법으로 정립하는 일이 필요하고, 증언소설은 이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개념이 된다(정찬영, 1998 : 211).

이러한 점에서 전대미문의 정치폭력을 경험한 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문학계에 최근의 역사적 사건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증언소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장르로 자리잡은 증언소설의 발생요인을 살피고 다음으로 중남미 최초의 증언소설로 평가되고 있는 로돌포 왈쉬(Rodolfo Walsh)의 『집단 학살(Operación masacre)』(1957)을 통해 증언소설의 미학을 살피고자 한다.

II. 아르헨티나 증언소설의 발생요인과 로돌포 왈쉬

아르헨티나 사회는 1973년 9월 페론주의가 다시 집권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6년 호르헤 비델라(Jorge Rafael Videla) 장군이 주

4)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설정하고, 한 세대에 대한 평가는 그 세대가 지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도한 삼군합동군부쿠데타로 정점을 이루는 무차별적인 억압과 정치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즉 ‘국가재조직과정(el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정권은 나라를 더럽히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게릴라집단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더러운 전쟁(La guerra sucia)’을 선포해 “납치나 폭탄 및 총기 테러를 자행한 테러리스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수행중인 국가재건 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이념적 행위까지 체제 전복자로 간주한다”(Avellaneda, 1986: 163)는 이들의 선포문에 따라 체제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든 인사들의 신체적 구속뿐 아니라 정신적 영역까지 구속하였다.⁵⁾ 과거의 군정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억압의 결과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해졌고, 1만-2만 명의 시민이 실종되거나 국가보안군에 의해 비밀리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민만식·권문술, 88-91). 또한 훌리오 코르타사르(Juilo Cortázar), 후안 호세 사에르(Juan José Saer), 사울 유르키에비치(Saúl Yurkiévich), 다빈 비냐스(David Viñas),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Tomás Eloy Martínez), 엠뎬 지아르디넬리(Mempo Giardinelli), 마누엘 푸익(Manuel Puig), 후안 까를로스 마르티니(Juan Carlos Martini), 오스발도 소리아노(Osvaldo Soriano), 움베르토 코스탄티니(Humberto Costantini) 등 중남미 문학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약 25명의 작가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리카르도 피글리아(Ricardo Piglia), 호르헤 리베라(Jorge Rivera), 미겔 보나소(Miguel Bonasso), 호세 빠블로 페인만(José Pablo Feinmann) 등은 아르헨티나에 머물면서 서술 퍼런 검열아래 작품활동을 펼쳤고, 로돌포 알쉬와 아롤도 콘티(Haroldo Conti)는 군부에 납치되어 아직도 실종자 명단에 남아있다. 사실상 반체제 사상의 중심부인 지식인 사회를 초토화시키려는 신군부의 문화정책(정신·문화 말살의도)을 경험한 젊은 작가들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난해한 언어의 사용과 소설의 형식적 테크닉 및 허구적 상상력에 의존하면서 아

5) Leo Pollmann에 따르면, “60년대는 무차별적인 억압의 시대는 아니었다.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그때 남아 있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대는 페론주의의 2차 집권에서부터 시작되어 1976년 신군부와 수많은 ‘실종자들’과 함께 다가왔다”(Pollmann, 268).

르헨티나 현실을 제대로 표출해 내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의 실험적인 글쓰기에 반발하면서, 최근의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재현해 강력한 사회비판을 담은 사실주의적인 글쓰기를 위해 새로운 문학적 장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직접 보고 기록하는 동시에 작가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 미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문학 양식인 증언소설이 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소설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⁶⁾

사실상 70년대 후반부 이후에 발표된 소설은 당시의 억압적인 사회 현실을 증언하지 않은 작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호세 빠블로 페인만의 증언처럼 “군부쿠데타이후 사상적 냉소가 조급이라도 나는 작품은 전혀 출판될 수 없었기 때문에”(Avellaneda, 1989: 78) 범죄와 폭력을 언급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르인 ‘흑색소설(*la novela negra*)’,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수정하거나 변형시키고, 역사적 사건과 환상적인 사건을 결합시켜서 전통적인 역사소설의 사실주의적 기준을 해체시키는 ‘신역사소설(*la nueva novela histórica*)’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적 전략을 사용하면서 실제 범죄와 폭력을 은유적으로 암시했을 뿐이다. 전자의 양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성적 폭력을 통해 당시의 군사정권의 정치폭력을 한 단계 승화된 형태로 고발하는 엠뎬 지아르디넬리의 『뜨거운 월광(*Luna caliente*)』(1983)과 엔리케 메디나(Enrique Medina)의 『걸레를 입에 물

6) 증언문학이 아르헨티나에 국한되어 발생한 장르는 물론 아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중남미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멕시코의 톨라텔볼코 대학살 사건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있었던 군사 독재-로 인해 대두된 급박한 사회 상황을 원동력으로 삼아 역사적 사실을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을 고발하는 문학작품의 필요성에 의해 그 세력을 급속히 뻗어 나가면서 중남미 현대 소설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 장르이다. 쿠바에서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의 파디야 사건으로 인해 문화 정책이 경직화되면서, 쿠바 정부가 ‘현실적 효과’를 지닌 역사적 상황을 흡수할 수 있는 문학을 강조함에 따라 쿠바 문화 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장르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칠레에서는 1973년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인한 역사의 급격한 변동과 사회의 불안정은 예술의 발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예술은 외부 현실과 긴급한 관계 설정의 요구를 인식하며 작가들은 사회적 현실 앞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증언문학이 하나의 장르로서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송병선, 「증언소설의 시학과 그 가능성」, 『외국문학』, 1996년 봄호 : 77-90과 홍해란, 「칠레의 군부 쿠데타와 증언문학」, 『라틴아메리카 연구』, 1997년 10권 1호 : 179-191을 참조할 것.

고(*Con el trapo en la boca*)』(1983)를 들 수 있고,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작품으로는 군부의 억압으로 인해 침묵한 채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과거 역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리카르도 베글리아의 『인공 호흡(*Respiración artificial*)』(1980)을 들 수 있다.⁷⁾

그러나 국내분열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국가를 경제적 파탄으로 이르게 한 행정정책의 실패와 말비나스에 대한 영국과의 전쟁패배로 인해 군부가 물러나고 1983년 10월 30일 총선거에서 승리한 급진당의 알폰신(Raúl Alfonsín) 민간정부가 들어서자, ‘국가재조직과정’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나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사적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나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증언소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이러한 문학 양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페르난도 로페스(Fernando López)의 『가장 훌륭한 적(*El mejor enemigo*)』(1984), 움베르토 코스탄띠니의 『신과 인간 그리고 경찰들에 관하여(*De dioses, hombreritos y policías*)』(1984), 미겔 보나소의 『죽음의 기억(*Recuerdo de la muerte*)』(1984)을 들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적』은 프롤로그에서 밝히듯이 “공포에 떨었던 70년대에 대한 증언”하기 위해 1975년 당시 강력계 반장이었던 반시니와의 인터뷰를 기초로 ‘더러운 전쟁’ 시기 극우테러단체의 정치적 폭력을 고발하며, 『신과 인간 그리고 경찰들에 관하여』는 1975년 12월 발생했던 좌파 게릴라에 의한 에스떼반 까세레스 모니에(Esteban Cáceres Monié) 장군의 피살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게릴라 및 시민단체에 대한 극우테러단체의 무차별적인 납치, 암살로 이어지는 실제 사건을 시인들, 극우테러단체 그리고 올림포 신들의 관점을 통해 재구성한다. 그리고 보나소의 『죽음의 기억』은 페론주의자이며 게릴라집단인 ‘몬토네로스(Montoneros)’의 리더였던 하이메 드리(Jaime Dri)와 군사

7) ‘국가재조직과정’의 폭력적 현실을 재구성한 소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lotnik, Viviana, “Alegoría y Proceso de Reorganización Nacional: propuesta de una categoría de mediación socio/histórica para el análisis discursivo”, en Hernán Vidal(ed.), *Fascismo y experiencia literaria: reflexiones para una reanonización*,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1985 : 532-577과 Lafforgue, Joëge, “La narrativa argentina”, en Saúl Sosnowski(ed.), *Represión y reconstrucción de una cultura: el caso argentino*, Buenos Aires: EUDEBA, 1988: 149-166을 참조할 것.

기술학교의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생존자와의 개인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불가해하고 끔찍했던 당시 현실을 재구성하고 픽션의 요소를 가미한 증언소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수용소의 생활상을 작가는 수용소에서 발행한 기록물, 인권단체에서 확보한 자료들, 실제 인물들의 개인적인 편지 등의 방대한 자료를 보충해 집필한 것으로 허구적인 인물을 적절히 조화시켜 미학적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다.⁸⁾

8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문학계의 핵심적인 문학장르로 자리잡게 된 이러한 형식의 글쓰기 전통의 뿌리는 매우 깊다. 19세기 중반 대표적 낭만주의 소설인 사르미엔토(Domingo Faustino Sarmiento)의 『파꾼도(Facundo)』(1845)와 에체베리아(Esteban Echeverría)의 “도살장(El matadero)”(1871), 그리고 대표적인 리얼리즘 소설인 만시아(Lucio Víctor Mansilla)의 『인디오 란젤 부족으로의 여행(Una excursión a los indios ranqueles)』(1870)에서 이미 사실성과 예술성이 효과적으로 배합되어 로사스 정권의 폭력성과 소외된 인디오들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1940년대 이후 소위 ‘신소설(La nueva novela)’의 등장으로 증언 형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체가 지양되고 허구성과 환상성이 강조되면서 증언적 서술행위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하지만 증언적 글쓰기 전통은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인 로돌포 왈쉬에 의해 다시 세워진다. 그는 50년대 후반에 발표한 『집단 학살』(1957)과 『누가 로센도를 죽였는가?(¿Quién mató a Rosendo?)』(1969)라는 작품에서 환상성이 우위에 서는 당시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인터뷰와 문학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사실성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창작방법을 아르헨티나 문학계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1956년 6월 9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교에 위치한 호세 레온 수아레스(José León Suárez)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

8) 이밖에 ‘국가재조직과정’ 시기의 아르헨티나 사회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증언소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avid William Foster의 “Narrativa testimonial argentina durante los años del ‘Proceso’”, en René Jara y Hernán Vidal(eds.), *Testimonio y literatura*,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1986: 138-153을 참조할 것.

(Pedro Eugenio Aramburu) 장군의 군사정권에 의해 비밀리에 총살되었던 12명의 주민들에 대한 서술자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집단 학살』은 이 분야에 권위자들인 레네 하라(René Jara), 아마르 산체스(Ana María Amar Sánchez), 실비아 라고(Sylvia Lago), 한스 파스첸(Hans Paschen) 등으로부터 중남미 현대 소설에 증언문학을 재정립한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문학 유형을 제시한 로돌포 알쉬는 1927년 아르헨티나의 리오 네그로(Río Negro)에서 태어나 1947년부터 기자생활을 시작한다. 1953년 처녀작인 추리소설 『적색 변화들(Variaciones en rojo)』과 아르헨티나 최초의 단편 탐정소설집인 『10편의 아르헨티나 단편 탐정소설집(Diez cuentos policiales argentinos)』을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는 1957년 『집단 학살』을 발표하면서 참여적인 성향의 작가로 변한다. 그는 『사타노프스키 사건(El caso Satanowsky)』이라는 제목으로 군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했으며, 1969년에는 아르투로 일리아(Arturo Illia) 정권(1963, 7-1966, 6) 말기 1966년 5월 금속회사 노조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킨 ‘라 레알 데 아베야네다(La Real de Avellaneda) 사태’ 때 무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암살된 노조 지도자인 로센도 가르시아 사건의 진상을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에 바탕을 두면서 이 모든 사건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증언소설인 『누가 로센도를 죽였는가?』를 출판한다. 1976년 3월 24일 군사쿠데타를 통해 호르헤 비델라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부퇴진운동을 전개하다, 1977년 3월 25일 군부에 의해 납치된 이후 아직까지 실종자 명단에 남아있다.

그는 이렇듯 사회와 역사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와 역사의 변동기를 요약할 수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을 선택하여 철저한 현장답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고 그것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객관적 판단과 인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새로운 문학적 방법을 모색했다.

Ⅲ. 『집단 학살』: 역사적 진실 탐색의 서사

『집단 학살』은 1956년 6월 9일 소위 ‘자유 혁명 Revolución Libertadora’ 정권(1955, 9-1958, 5)의 억압적인 정치형태에 반대해 페론의 추종세력인 바예(Valle) 장군과 땅고(Tango) 장군이 주도한 군부 반란에 가담한 혐의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축구와 함께 국민적인 스포츠였던 복싱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한 가정집에 모여있던 단순 가담자들과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무고한 주민들까지 체포되어 호세 레온 수아레스 쓰레기 매립지에서 비밀리에 처형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정치와 사회적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이 평범한 기자 겸 추리소설작가 생활을 했던 왈쉬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후 총살에서 목숨을 건진 리브라가를 우연히 만나 그 사건의 진상을 들은 후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공식적인 언술의 진실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품고, 나머지 생존자들 및 희생자들의 가족을 비롯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물들과의 인터뷰 및 녹음, 끝없는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식적인 언술의 기록물을 대조해 정통성의 취약점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그 동안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사회·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권위주의 체제의 범죄행위를 폭로한다⁹⁾.

왈쉬는 이 소설에서 취급된 소재의 사실성과 역사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단순한 허구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프롤로그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게 된 동기와 과정 그리고 조사작업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밝힌다.

6개월 후, 더위에 숨이 막힐 지경인 어느 여름 날 밤, 맥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한 사나이가 말했다.

-총살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종잡을 수도 없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이러한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에 관심이 끌리는 이

9) 여기서 공식적인 언술이란 국가 기관을 포함하여 대학이나 언론 기관과 같은 사회의 모든 제도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김옥동, 335)

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무심코 그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후안 까를로스 리브라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

그러나 곧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얼굴, 뺨에 나있는 구멍, 목덜미에 나있는 더 큰 구멍, 부서진 입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흐릿한 두 눈을 보았다. (...)

리브라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이 소설이 탄생한다. 6월 9일의 기나긴 밤의 진실이 회복된다. (...) 지금부터 약 1년 동안 나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집과 직장을 포기할 것이고, 프란시스꼬 프레이레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이며, 이 가명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 -피범벅이 된 채 사지에서 빠져 나와 머나 먼 길을 기어 나온 리브라가, 빛받치는 총알을 뚫고 들판으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진 또 다른 사나이(히온파), 그가 모르고 있는 생존자들과 희생된 사람들- 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11-12)

사실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책략은 학술논문에서 자주 쓰이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각주의 사용이다. 알쉬는 각주에서 사전에 조사했던 정보를 토대로 등장인물 및 구체적인 사항들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재구성된 서술에 사회성 및 역사성을 부여한다.¹⁰⁾ 이밖에도 비상계엄 포고문, 피해가족들이 정부에 보내는 전보 내용 및 그 답장, 가해자들의 보고서 등을 그대로 전사해 서술자의 이야기와 공식적 언술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전자의 진실성을 보여준다.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사건을 전개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역사적인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의 사용은 증언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이 사실에 바탕을 둔다고 해서 체험을 기억해야겠다는 작가의 기록정신과 그에 따른 역사의식이 문학성에 선행하는 논픽션이

10) 본 고에서는 허구화되기 이전의 사실의 전달을 '진술'로, 사실을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은 '서술'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진술의 미학적 재구성이 서술이 된다. 아울러 '화자'로도 불리는 서술의 주체는 서술과 통일을 기하기 위해 '서술자'로 사용함을 밝힌다.

나 르포르타주와 같은 기록문학¹¹⁾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소설은 효용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 또는 증언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 모색이 이루어지며, 역사의식과 함께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갖고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적·미학적 모색이 이루어진다. 물론 기록문학에는 상상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사진 찍듯이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역사와 사실의 기록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개입하기 마련인바 역사에서는 이를 역사적 상상력이라 하고, 기록문학의 상상 역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사실에 바탕한 상상이란 점에서 사실적 상상력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 소설은 텍스트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선별이나 생략, 장면이나 대화 등 소설 구성요소를 긴밀히 엮음으로써 기록문학보다 미학적 측면을 더욱 강화한다.¹²⁾

왈쉬는 서문에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이 소설이 탄생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설이 사실의 객관성과 사실적 상상력이 조화롭게 구성되었다는 점을 이미 밝혔으며, 페이지 하단의 각주에서도 자신이 사전에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재구성된 서술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 서술이 서술자에 의해 허구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살된 마리오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를 서술하는 장면에서 왈쉬는 페이지 하단의 각주를 통해 자신의 조사내용을

11) 기록문학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에 의한 과거의 한 사건 또는 한 인물을 되살려내는 전기나 역사 이야기는 물론, 논픽션과 르포르타주,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기 체험에 입각한 여행기, 일기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논픽션은 소설처럼 허구 즉 픽션을 섞지 않고,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흥미있게 엮어낸 이야기다. 논픽션은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픽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쓰이며, 현실에 일어난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소설이 가지지 못하는 현장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면, 구체적 사실이 상상적 허구보다 더욱 허구같은 면도 있어 20세기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르포르타주는 주로 프랑스어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보고하다’, ‘탐방하다’란 뜻이 의미하듯 미지의 인물 또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인물들에 대한 보고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논픽션과 르포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영화나 텔레비전 등 주로 영상을 전달매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2) David William Foster는 그의 논문 “Latin American Documentary Narrative”에서 이 작품을 가장 대표적인 증담미 기록문학으로 분류하지만 그가 말하는 기록문학의 개념은 본고의 증언소설의 개념에 가깝다(Foster, 1984: 42-44).

밝힌다.

* 마리오 브리온의 암살소식은 1957년 2월 19일자 일간지 『레볼루시온 나시오날(Revolución Nacional)』에 내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그의 가족들은 나를 찾아 왔다. 불행하게도 내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사망했다(126).

실제 사건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또 다른 문학적 책략은 탐정소설 구조의 도입이다.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진실 찾기 게임 속에 담음으로써 문학적인 동시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인 언술에 의해 은폐되었던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력을 갖춘 서술자는 죄 없는 주민들을 불법 구속하여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범행(“사건들”)의 주인공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수집과 생존자 및 희생자의 주위 사람들(“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허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제1장인 “인물들(Las personas)”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곳에서는 3인칭 서술자에 의해 12명의 등장인물들 하나 하나의 신상이 자세히 서술되고, 군부반란이 일어난 6월 9일 밤에 이들이 오라시오의 집에 모이게 되는 경위에서부터 계엄군에게 체포되는 순간(이때까지 실제 비상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음)까지의 상황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이러한 상세하고 객관적 서술방식을 통해 당시 서민들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특히 페론주의자들의 힘든 도피생활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1절에 소개되는 까란사를 살펴보자.

니콜라스 까란사가 집에 막 도착했다. (...)

그의 부인 베르타 피게로아는 근심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 남편은 언제나 날이 어두워지면 쫓기듯이 잠깐 들린다. 가끔 하루 저녁을 지내기도 하지만, 그런 다음 몇 주간 집을 비운다. (...)

니콜라스 까란사는 페론주의자이다. 그리고 쫓기는 몸이다.(...)

-나는 흥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23-26)

페론이 망명한 후 들어선 아람부루 군사정권은 모든 페론주의자의 숙청을 시도해 페론주의의 지도자들, 특히 그들의 노동조합을 붕괴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친페론주의 군부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 예문에서도 단지 페론주의자라는 이유 때문에 도피생활을 하는 남편과 생과부가 되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부인의 모습을 통해 당시 억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며, 군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구실을 준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대부분의 인물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지만 역사에서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주변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특히 페론주의자들-고착된 시각이나 관념의 틀에 박힌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사회와 역사의 변동기의 한 측면을 요약하고 있는 개인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어느 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제시됨으로써 역사적 사건과 상황의 전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2장인 “사건들Los hechos”에서는 이들이 체포되는 과정, 학살 장소로 이송되어 가는 모습, 이들에 대한 발포와 필사적인 도주 과정이 서술되며, 그들 각자의 생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곳에서는 제1장에서 암시했던 정치·사회적 폭력이 현실화된다. 제23절 “대학살(La matanza)”을 살펴보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쳤다.
-겁먹지 마시오 -그들은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오.(...)
-까란사, 우리 흠여지자 -갈비노가 말했다. 우릴 죽일 것 같애.(...)
총소리가 들렸다. 하사관(출신의 피해자)은 아! 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미 죽었다.(...)
히운타는 총을 맞았다.(...)
비센테 로드리게스가 땅바닥에 쓰러졌다.(...)

억압당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페론주의자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즉 바에 장군과 땅고 장군의 주도하에 군부 반란이 일어나고, 군부는 무력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일부 군장교를 포함하여 약 40명이 지도자들이 처형되었다. 이 예문에서는 단지 이 군부반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비상계엄령이 발표되기도 전에 체포되어 결국 처형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군부의 체제유지를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군부의 잔인성을 그리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사회에 일반화된 폭력성을 보여준다.

제2장까지 서술자는 서술된 것에 대하여 참견과 주석을 하는 주석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독자의 방향감각을 고려하는 보고적 서술 방식을 취해 서술시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객관적 보여주기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의 서로 충돌하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내 보인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역사적 관점이 해체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공식 언술과 차별화 되면서 독자들은 보다 폭넓게 사실을 관조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의 사용은 전통적인 소설처럼 한 서술자의 일관된 목소리의 통일성을 지양하고 등장인물의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다성성을 가짐으로써 사실적 상상력에 의해 재구성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띠는 장치로 사용되므로 소설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제3장인 “증거La evidencia”에서는 사건의 재판과정, 2명의 생존자의 증언, 발포당사자들의 거짓증언, 대법원의 최종 판결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서술자는 일정한 개입으로 국립라디오 방송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희생자들이 체포된 당시에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그 사건은 처형이 아니라 살인이다”(192)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발포책임자들이 “아직 권력의 중심에 서있다”(192)는 사실을 밝힌다.

여기에서는 법 위에 존재하는 군부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와 동시에 완결된 역사적 사실에 또 다른 해석을 첨부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비록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서술방식은 지금까지의 서술방식과는 달리 서술된 것에 참견과 주석을 하

는 주석적 서술방식을 따르지만, 완결된 서사형식을 취하면서 총체성을 지향하는 소설 양식인 역사소설과는 다르다. 군부의 공식적인 언술과 차별화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보장해 새로운 역사해석의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의 전체적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의 비종결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열린 구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 소재인 쓰레기 매립지 학살 사건은 지금 현재의 사건이며 그 모순이 현존하는 사회적·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가 현재로 체험하고 있고 공간 역시 현실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사실과 허구가 적절하게 혼합됨으로써 증언소설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인다.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기록과 사건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적절히 배치해 작품의 생생한 현장성과 사실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사용해 문학예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예술성과 사실성을 효과적으로 배합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의 결과로, 증언소설의 미학적 특징이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소설은 '대량 학살'의 피해자들 및 가해자들의 증언과 작가의 철저한 사건조사를 바탕으로 체험적 당대의 가해자인 군부가 조작·은폐하고자 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중심 소재로 다루며, 사회과학적 방법론(현장답사, 인터뷰, 녹음, 사진 등)과 문학적 방법론(선별, 생략, 장면, 대화, 탐정소설 기법 등)의 융합이라는 형식적 중립성을 취하며, 서술방식의 다양화로 역사적 진실성을 지향하고, 미완성의 공간을 다루는 소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증남미 문단에 증언소설의 전형을 제시한”(Newman, 40, 77)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정의는 증언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적 성향이 배제된 문학을 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Pesce, 207)라는 왈쉬 자신의 주장처럼, 역사적 사실이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작·왜곡될 수록 그것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역사 재해석의 기회를 부여해 극복하려는 시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소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역사서술의 학문적인 가치가 인정되고 공식적인 언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 서울: 민음사, 1992.
- 민만식·권문술,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정치적 상황과 국제 관계』, 서울: 탐구당, 1985.
- 정찬영, 「한국 증언소설의 형성 배경과 전개 양상」, 『현대문학논총』, 제24집, 1998.
- _____, 「증언소설의 개념과 특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1999.
- 後藤政子, 『라틴아메리카 현대사 : 격동기의 정치·경제사』, 서울: 한울, 1985.
- Amar Sánchez, Ana María, “La propuesta de una escritura(En homenaje a Rodolfo Walsh”, *Revista Iberoamericana*, 52(135-136), 1986.
- _____, “La ficción del testimonio”, *Revista Iberoamericana*, 56(151), 1990.
- Avellaneda, Andrés, “Literatura argentina: los años de amputación”, en Rose S. Minc.(ed.), *El cono sur: dinámica y dimensiones*. Upper Montclair: Montclair State College, 1989.
- _____, *Censura, autoritarismo y cultura: Argentina 1960-1983*,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1986.
- Foster, David William, “Latin American Documentary Narrative”, *PMLA*, 99(1), 1984.
- _____, “Narrativa testimonial argentina durante los años del ‘Proceso’”, en René Jara y Hernán Vidal(eds.), *Testimonio y literatura*,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1986
- Hoopes, James, 『증언사 입문』, 서울: 한울, 1995.
- Jara, René, “Prólogo: Testimonio y literatura”, en René Jara y Hernán Vidal(eds.), *Testimonio y literatura*, Minnesota: Institute for the Study of Ideologies and Literature, 1986
- Jenkins, Keith,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혜안, 1999.

- Murga, Clara María, "Nuevo periodismo: Rodolfo Walsh, Un precursor", *VII Congreso Nacional de Literatura Argentina*, Universidad Nacional de Tucumán, 1993.
- Newman, Kathleen, *La violencia del discurso: el estado autoritario y la novela política argentina*, Buenos Aires: Catálogos, 1992.
- Pacheco, José Emilio, "Nota preliminar", Walsh: *Obra literaria completa*, México: Siglo Veintiuno, 1985.
- Paschen, Hans, "La novela-testimonio - rasgos genéricos", *Iberoamericana*, 3/4(51/52), 1993.
- Pesce, Víctor, "Rodolfo Walsh, el problemático ejercicio de la literatura", en Rodolfo Walsh, *Cuento para tahúres y otros relatos policiales*, Buenos Aires: Puntosur, 1987.
- Pollmann, Leo, "Lírica y libertad. Posiciones de la poesía argentina del postcuarenta", en Karl Kohut y Andrea Pagni(eds.), *Literatura argentina hoy*, Frankfurt am Main: Vervuert Verlag, 1989.
- Lago, Sylvia, "Rodolfo Walsh: El violento oficio de escritor", *Casa de las Américas*, 184, 1991.
- Mink, Louis O., "Philosophical Analysis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Review of Metaphysics*, 21(4), June, 1968
- Walsh, Rodolfo, *¿Quién mató a Rosendo?*, Buenos Aires, Tiempo Contemporáneo, 1969.
- _____, *Operación masacre*, Buenos Aires, De la Flor, 1972.
- _____, *Libros homenaje editados Roberto Santoro y Rodolfo Walsh*, Madrid, Rescate, 1981.
- White, Hayden, "The Burden of History", *History and Theory*, 5(2), 1966.
- _____,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 메타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Abstract

El factor de nacimiento de la novela testimonial argentina y Rodolfo Walsh

Park, Chong-Yul

A partir de la década de 1970, y en particular desde la instauración, el 24 de marzo de 1976, de un gobierno totalitario que implementa un sistema salvaje e inédito de represión, tortura y muerte, surge una nueva generación de escritores que empieza la construcción de sus nuevas formas de representación literaria de la violencia en la época que les toca vivir, haciendo uso de la novela testimonial. La razón es que ellos perciben este género como un instrumento adecuado para reflejar la sociedad violenta y represiva, tanto a causa de la insuficiencia de los códigos existentes para presentar el horror vivido, como por la presencia de una censura férrea y brutal tendiente a depurar toda forma de denuncia o de protesta y así homogeneizar el discurso cultural.

En ese contexto socio-cultural, aparecen en 1984 ciertas novelas testimoniales significativas que van desde la publicación de *El mejor enemigo*, de Fernando López, pasando por *De dioses, hombrecitos y policías*, de Humberto Costantini y *Recuerdo de la muerte*, de Miguel Bonasso. Son las novelas indudablemente adscritas al estilo de lo testimonial y planteadas generalmente como la denuncia de una verdad oculta.

Sin embargo, esta nueva forma de escritura ya se ha empezado en 1957. *Operación masacre* y *¿Quién mató a Rosendo?*(1968), de Rodolfo

Walsh rompen las barreras entre lo ficcional y lo testimonial y son ejemplos de la narrativa testimonial que apareció en las letras latinoamericanas en este período. Relata en la primera incidentes relacionados con una insurrección con la que el peronismo había pensado recuperado el poder por la fuerza. Cronica la represión que se ejerce sobre un grupo de civiles, salvajemente ejecutado en un basural de José León Suárez, provincia de Buenos Aires. Sus características formales nos permiten adscribirla en ese nuevo modo de producción literaria: la novela testimonial.

Key words : 증언소설(novela testimonial), 로돌포 왈쉬(Rodolfo Walsh), 아르헨티나 소설(novela argentina)